

소명 받은 사람들

2020. 12. 27. 성탄1주일

이사 61:10-62:3 / 시편 148 / 갈라 4:4-7 / 루가 2:22-40

#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네요.

이제 웅얼이를 시작했을까요?

아기는 태어나면 '으앙'하고 울지요.

근데 왜 울까요?

따뜻하고 편안했던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춥고 낯선 환경에 던져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기가 엄마 몸에서 나오면
뱃속에서와는 달리 허파로 숨을 쉬어야하기 때문에
다량의 공기를 재빨리 가슴으로 빨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 같은 행위가 바로 울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편안했는데
천국 같던 그곳을 뒤로하고 나와야 했으니
억울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울던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칩니다.
뱃속에서 늘 느끼던 엄마의 심장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하느님의 일부로, 하늘로부터 태어났기에
하느님의 심장소리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품에 안길 때에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며
삶에 지쳐 앙앙 울던 울음을 그치게 되는지도 모르지요.

#

성탄 즈음하여, SNS에서 이런 질문의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지상에 태어나면 좋은 건 줄 알고 태어나신 걸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떠다 밀어서 하는 수 없이 태어나신 걸까?
우리가 아는 것은 성서의 기록뿐이다.*

공생애가 3년이면 그냥 서른 살 된 젊은이를 내려 보내실 것이지
왜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온 가족 고생을 시키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왜 굳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일까요?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천국생활(요한 1:1-4)을 버리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
하느님의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동물들도 곁에 있었지요.)
(아, 하늘 군대와 천사들도 있었네요.)

우선 목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 것 없던 이들이
아기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방세계 사람들이 두 번째 목격자라는 것도 의미심장한 내용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보듯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오래 기다리던
두 명의 남녀예언자 시므온과 안나도 만납니다.

12년이 지난 어느 날
소년 예수는 과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찾은 성전에서
많은 학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다시 청년 예수와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세례자 요한, 열두 명의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
자신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일행을 도왔던
요안나, 수산나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타로 올랐던 키레네사람 시몬.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예수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부터 빈 무덤과 그 이후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짜잔'하고 서른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결코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지요.

#

성경 속 예수님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고 지금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거나
사랑으로 세상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눈에 띄게 활발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대중의 눈을 피해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시므온과 안나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느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당신의 일을 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을 통해 그 일을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지도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 모르겠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특별히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느님의 품속과 같은 하느님의 나라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더 나은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